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강 춘 모	학번	
이메일	chunmokang@naver.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국가) USA
기 간	2018.1.5 ~ 12.15	[귀국일:2018년12월29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9년 1월 5일

신 청 인 : 강 춘 모 (인)

1.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가. 집 렌트하기

미국에서 1년간 생활하는 것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정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는 4인 가족이 함께 미국에서 생활했고 자녀가 초등학생이라, 우선 순위로 초등학교 근처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아파트를 구하고자 했다.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카멜밸리 또는 UTC 지역에 집을 많이 구하는데, 나는 UTC 지역을 선택했다. 미국 입국 전에 아파트를 계약하는 방법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1년간 살 아파트를 직접 보고 계약하려고 생각하였기에 미국 입국 후 집을 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미국 입국 후 몇 일간 인근 호텔에 머물면서 사전조사를 해 두었던 아파트 목록을 보고 리싱 오피스를 방문하여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직접 보고 계약하면 큰 부담 없을 것 같다. UCSD 근처 아파트는 매년 전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 또는 연수 목적으로 입학 하게 되면서 아파트 렌트비가 계속 오르는 실정이다. 아마도 샌디에고로 오시는 분들은 아파트 렌트비가 미국 내 타 지역보다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로 나는 초등학교 자녀가 있어 아파트 1층으로 집을 구하였는데 이유는 미국 집들이 목조로 되어 있어 아래층 주민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어필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자동차 구매

새 차를 구매한다면 브랜드 딜러에게 구매하면 되고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일반적으로 개인으로부터 구매하거나 중고차 딜러에게서 구매한다. 샌디에고 커뮤니티 www.sdsaram.com에서 귀국하시는 분들이 중고차 판매를 올려놓기도 하는데, 내가 찾는 차종과 구매 시기가 잘 맞지 않아 거래가 쉽지 않다. 미국 생활에서 집보다 중요한게 자동차라고 생각한다. 기동력 확보를 위해 자동차가 필수이다.

중고차를 산다고 하면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브랜드, 차종 등을 결정한 후 중고차 딜러를 방문하여 구매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은 도요타, 혼다 일본차들을 많이 구매하는데, 가족이 있다면 SUV 또는 미니밴을 추천한다. 장거리 여행을 갈 경우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고 미국으로 친지 방문 시에 활용도가 높다. 구매 차종을 정했다면 근처 중고차 딜러를 방문하여 차량을 확인하여 직접 시승을 해보아야 한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직접 차를 주행해보아야 그 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딜러에게 www.carfax.com를 통해 차력 조회를 요청해서 사고 유무나 차량 리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마음에 드는 차를 찾았다면 딜러와 계약을 하고 바로 차량 보험을 가입하면 대부분의 절차는 끝이 난다. 중고차 딜러를 통하면 차량 이전과 세금 납부 등을 대행해 주므로 행정절차상 편리한 점이 있다.

다. 자녀 초등학교 입학

학교마다 Winter Break 기간이 상이하므로 학교 입학 등록 전에 홈페이지 확인 후 학교 방문하는 것이 두 번 걸음을 피할 수 있다. UTC 도일초등학교를 보면 12월 중순에 겨울 방학을 하므로 보통 1월초 개학하는 날에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입학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우리 애들은 한국에서 1학년과 4학년에 재학중이었고 도일초등학교에 입학 신청을 하니 아이의 나이와 현재 학년을 고려하여 학년을 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일초등학교는 여러 나라에서 UCSD로 연수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라, 다양한 국가와 인종들이 한 교실에 섞여 있다. 큰 아이가 4학년이었는데, 캘리포니아 미션에 대해 조사, 발표하는 과제가 있었다. 이 과제를 위해 가족 모두 "Mission Soledad"로 1박2일 현장방문을 한 후에 과제를 작성한 적도 있었다. 한국 초등학교의 형식적인 과제보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만큼 문제 해결 능력과 팀워크를 기를 수 있는 좋은 교육법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큰 아이 담임선생님은 매일 학교를 마칠 때 학생 한명 한명씩 포옹을 한 후 하교를 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 도일초등학교 입학 구비 서류

1. Birth certificate and/or passport
2. Immunization Record (DTap x 5, Polio x 4, Hep B x3, MMR x2, Varicella x2)
3. Proof of Residency-utility bill or lease agreement
4. Photo ID

라. 자녀 영어 튜터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어 영어 튜터를 통해 영어 공부를 시켰다. 영어 튜터를 구하는 방법으로 먼저 연수오신 분의 소개를 받거나 www.care.com 이, 또는 UCSD GLI 담당자에게 요청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인근 University Community Branch library 도서관에 영어 튜터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도서관에서 방과후 숙제를 도와주는 튜터를 있지만 영어를 가르치는 튜터는 없다고 하였다. 먼저 연수오신 분의 도움으로 그분 자녀를 가르치는 영어 튜터를 소개 받았지만 선생님 집으로 애들을 태워주고 태워 오는 불편함이 있어 이 방법은 제외했다. 그래서 www.care.com 으로 영어튜터를 구했는데, 샌디에고 초등학교 현직 교사로부터 영어 교육을 몇 달간 시켰는데 현직 초등학교 교사라서 가르치는 스킬, 콘텐츠 등이 풍부하여 아이들도 좋아하여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www.care.com 으로 영어 튜터를 구할 때 메신저를 통해 컨택하고 만나서 결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 UCSD GLI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UCSD International Center에 연결된 UCSD 재학생을 영어 튜터로 고용한 적도 있는데, 학생마다 가르치는 스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좋은 영어 튜터를 만나는 건 운이 필요한 것 같다.

2. UCSD 학교 생활

가. 개요

- 구 성 : 3학기(겨울, 봄, 가을학기)
- 수강과목 : 12학점/학기당 (GLI 영어과목 2학점, GPS 대학원과목 4학점)
- 수강신청 : GLI 담당자가 이메일로 수강신청 안내를 메일로 보내줌, 여기엔 과목별 개략적인 내용만 있고 세부적인 Syllabus는 없기 때문에 세부 내용 확인 불가. 수강신청서 작성 후 메일로 제출

나. 수업 진행

- 출석 : 최소 80%이상 되도록 요구
- 수업 : KDI 수업 진행과 비슷함, UCSD 대학원과정에 GLI 신청자들이 수업을 함께 듣는다고 보면 됨

다. UCSD 과정에 대한 느낌

- 많은 연수자들이 지불하는 수업료에 비해 커리큘럼이나 UCSD 서비스가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나도 비슷한 생각이다. 우선 샌디에고의 좋은 기후 때문에 연수자들이 많아서 인지 학교 측의 제공서비스는 전무하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모든 교수님과 수업 진행이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과목은 동일한 커리큘럼이 반복되거나 수업의 질이 그다지 좋지 못함을 느낄 수 있었다.

3. 여 행

연수를 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고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등으로 여행을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자동차로 미국 대륙 횡단을 추천합니다. 가족과 함께 여름 방학때 한달 동안 샌디에고를 출발하여 중부를 거쳐 동부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을 여행하는 경험을 해 보았다. 처음엔 비행기로 서부에서 동부로 이동하여 동부 대도시를 여행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자동차 여행이 더욱 유익하고 즐겁다는 주변 지인의 조언을 듣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한달 간 여행을 위해 한달 반 준비를 하였고 기간은 30일로 정하였다. 이유는 장기간 여행이 오히려 피로감이 더해져 여행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기한을 정한 것이다. 한달 간의 방문지, 이동루터, 숙박 등을 정한 후 과감하게 지나칠 곳은 그냥 지나간다. 나는 동부 지역과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여행 계획을 세웠기에 중부 지역은 지나가는 이동경로가 많았다. 하지만 중부지역 이동 중에 뜻하지 않게 보게 된 멋진 도시와 장소를 발견하는 재미도 있었다. 비용 절약을 위해 호텔, 에어비엔비, KOA를 적절하게 섞어 지냈는데, 어린 자녀가 있다면 KOA를 적극 추천한다. 우리나라 캠핑장과는 달리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자녀들이 즐기기에 적합하고 우리 애들도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난다. 미국에서 캐나다 등 여러 곳을 여행해 보았지만 한달 간의 미국 대륙 횡단이 가족과 함께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KDI School, 263 Namsejongro, Sejongsi, KOREA

TEL: 82-44-550-1253 FAX: 82-44-550-1232

HOME PAGE: <http://www.kdischool.ac.kr>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민 규 옥	학번	
이메일	mingugu1@naver.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국가) 미국
기 간	2017.12.16 ~ 2018.12.15	[귀국일:2018년12월15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6일에 미국에 도착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홈스테이 숙소를 정해 놓은 상태라 미리 사전 점검 차원에서 학기가 시작하는 시기보다 2주일이나 먼저 도착한 것이다. 호스트는 나이가 비슷한 영국 여성으로 1년동안 홈스테이 하면서 문화적, 개인적인 의견의 차이로 많이 다투기도 했지만 귀국할 무렵에는 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호스트가 채식주의자라 주로 감자와 야채 위주의 음식을 먹었지만 칼로리가 높은 버터 등을 이용한 음식과 빵 때문이었는지 체중이 상당히 불어, 귀국을 한 지금까지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외국에 여행은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1년 가량 오랫동안 거주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굉장히 긴장을 했었던거 같다. 거기에는 짧은 영어 실력도 한 이유였을 것이다. 하지만 초기 정착시에는 샌디애고에 미리 와 있던 KDI 학우의 도움을 받아 은행계좌 만들기, DMV의 차량인수, 운전면허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다행히 집과 학교가 가까웠고 한국 슈퍼마켓인 시온 마켓과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면 자주 들르곤 했다. 초기에 정서적으로 허전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 사는 곳은 모두 똑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잘 적응해 간 것 같다.

토익 점수가 모자라 기본 영어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해서 듣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대학의 영어 교수님들은 알아 듣기 쉽게 천천히 말하는 배려 영어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 가는데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일반 학생들과 듣는 수업은 솔직히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과제나 복습을 철저히 하면서 수업에 따라가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수를 한 것 같다. 수업과 관련해서 특이한 점은 나는 평소 라틴아메리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틴아메리카 관련 수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2과목이나 듣게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와 폭력 등의 수업이었다. 수업시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국이나 남미 학생들이었고 동양인은 나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친구들과 교수

님의 도움으로 즐겁게 수업을 들은 것 같다. 영어가 유창한 친구들과 발표 수업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었지만 대신에 자료를 많이 준비하는 등 나만의 노하우로 극복해 나간 것 같다. 라틴 수업에서 사귀 멕시코 친구인 웬디는 멕시코 여행에 대한 많은 팁을 나에게 주었다. 마지막 학기에는 수업이 끝나면 한국학생 명, 중국의 홍메이나 일본의 타로, 마사 등과 도시락을 먹곤 하였는데 이것도 즐거운 추억이 되었다. 나는 떡볶이와 김밥을 자주 싸갔다. 외식을 하는 것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점심 도시락을 5인분 정도 싸갔는데 모두들 좋아했었다.

여름방학 동안 부족한 영어 점수로 인해 여름학기 ESL 수업을 들을 것을 종용 받았지만, 방학을 학교에서만 보내기는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았기에 꾸준히 학교 직원인 Nick에게 면제 요청에 대한 메일을 보냈다. 결국은 ESL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반가운 답변을 들었다. 여름방학엔 라틴아메리카와 관련하여 중남미 여행을 계획하였다. 수업 시간에 들은 것과 실제의 생활상 등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칠레, 에콰도르를 제외한 모든 남아메리카 제국과 국경선을 접할 만큼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넓은 나라였다. 나는 브라질 도시 빈민인 파벨라의 실상 등에 대해 관심이 있었지만, 패키지 여행객의 수준이었던 유명 관광지인 리오데자나루와 아마존 폭포 등을 관광하였다. 걸출한 풍경이 살아있는 여행이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아이레스에도 잠깐 들러 매력적인 전통 탱고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페루에서는 평소 보고싶었던 나스카의 문양을 보았고, 잉카 문명의 상징인 마추피추에 올랐다. 페루에서 남미 3대 문명의 하나인 잉카 문명에 대해 일견을 하고 나서 마야나 아즈텍 문명에 대한 호기심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혼자서 짐을 꾸려 멕시코에 여행을 하게 되었다. 마야 문명의 흔적을 살펴보았다. 또, 아즈텍 문명을 알려주는 테오티우아칸의 방문은 내게 경이로움을 안겨주었다. 이렇게 남미에서는 한달 가량 머물렀고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의 여행이었지만 고대문명의 원초적인 모습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멕시코의 주요 도시인 과달라하라, 푸에블라, 톨루카에 다녀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과달라하라는 우리 대전시와 자매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 더욱 반가웠다. 과달라하라에서의 데킬라 마을 투어는 아주 흥겨웠다. 용설란(아메가)이 원료로 만들어지는 아네호, 레포싸도, 블랑코는 데킬라의 대표적인 종류이다. 1년이상 오크통에서 깊이 숙성된 아네호에 오렌지 주스와 탄산수를 넣은 스쿠류드라이버는 어느새 나의 최애 드링크가 되어 버렸다. 또 특별히, 대전시청에 근무하는 나로서는 자매도시에 대해 실제적인 모습을 보게 된 것은 여행 이상의 큰 의미가 있었다. 학기중에는 틈틈히 동료들과 근교인 미서부 여행도 다녔다. 미국은 근교라고 하지만 차로 7시간 이상 차로 달려야 요세미티에 갈 수 있으니 미국은 광활한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다.

미국 생활에서 인상깊었던 점을 말하라면 민원의 요구를 잘 들어 준다는 평을 하고 싶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학기에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하게 되었는데, 차 앞유리에 부쳐져 있는 벌금 통지서를 발견하게 되었다. 하지만 처음이라 잘 몰랐다고 하면서 인터넷으로 어필을 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이곳 DMB의 행정처리가 늦은 것으로 유명하기는 하지만, 인터넷에 착오 입금한 금액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러 갔을 때 청원 경찰의 도움을 받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또 다른 한가지는 LA에서 열리고 있었던 LA다저스의 경기가 샌디애고 펫코 경기장에서 열리는 줄 알고 잘못 예약한 티켓을 펫코 티켓 부스에서 환불 받은 것이다. 처음에는 안된다고 매니저가 말했지만, 4명분의 400불에 해당하는 티켓에 대해 너무 억울하다고 항변하니까 결국은 매니저가 본부에 전화를 걸어 환불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런 나의 소감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미국은 물질이 풍부한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 같다.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쌓인 물건들은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환불 절차는 너무 간단해서 부담이 없다. 또, 우리나라 G마켓도 빠른 배송을 자랑하지만 땡스기빙 데이에 주문한 시계가 하루도 안돼 도착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샌디애고는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는데, 샬러드 보울같이 서로 이질적인 것이 조화롭게 섞여 있는 느낌이다. 일례로 우습게도 자주 가는 동네에 있는 프렌치 베이커리에는 흥미롭게도 멕시코 셰프가 약간의 정체가 불명한 프랑스 음식을 만들어 판다. 또, 힐케스트라고 하는 핫하다고 하는 게이들의 거리에는 맛집들도 꽤 많다. 호스트와 나는 인디언 레스토랑인 인디언 팰리스와 영국식당 세익스피어 펍, 멕시코 식당 카사드반디니에 자주 들렀다.

샌디애고 시내 구경을 위해 올드타운의 시티버스 투어를 추천하고 싶다. 샌디의 대표적인 명소를 버스를 타고 내려서 주요 장소별로 걸어서 즐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차량 구입에 관련해서이다. 개인적으로 도요타 캠리 2013년 산을 12,000불에 구입해서 3,000마일 정도 주행하고 7개월만에 8,500불에 팔게 되었다. 운전을 좋아하지 않고 서툴기 때문에 필요한 곳만 운전을 해서 주행 거리가 작은 편이다. 그런데 차량은 소모품이라 감가상각비가 많이 든다. 학교도 버스로 통학이 가능하고 어디서나 우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차량 구입은 하지 않아도 됐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에서 운전을 해봤다는 경험은 소중하지만 효과 대비 많은 비용이 들어 간 것 같아 아쉽다.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나의 인상은 제2 외국어인 영어에 대한 완벽한 숙지가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운 실용적인 수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다. 기타 샌디애고에서의 경험을 말하면 교민들과의 교류를 들을 수 있겠다. 평소 불교 수행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샌디애고 정토회에 다니면서 불교 수행에 대해 회원들과 깊은 토론을 할 수 있었고, 오랫동안 샌디애고에 살았던 정토회 회원들이 땡스기빙 데이 등의 기념일에 집에 초대해 줘서 미국 문화를 체험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기대했던 것 보다 환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든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처음엔 걱정이 되겠지만 "이번 기회가 인생에서 충분히 자신의 스펙뿐만 아니라 내면을 확장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미국 UCSD에서 수료증이 택배로 왔다. 반가운 마음

과 감회가 새롭다. 따스한 햇빛, 아름다운 해변, 다양한 사건들, 정겨운 사람들과 공부하면서 아름다운 샌디애고에서 보낸 시간들이 더없이 소중하다. 이 모든 경험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야겠다.

교학처장 귀하

2018년 12 월 28일

신 청 인: 민 규 옥 (인)



